

2010년 1/4분기 고용동향과 향후 전망

동향분석실*

I. 최근 고용동향

1. 2010년 1/4분기 노동시장 특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충격의 영향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악화되었던 고용시정은 2010년 1/4분기에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하반기까지 지속되던 취업자 감소는 2010년 1월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10년 3월까지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1/4분기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32천 명이 증가한 0.3%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4분기의 취업자 감소(-145천 명)에 기인한 기저효과와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회복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0세 이상이 주도적으로 취업자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고, 20~30대의 고용시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1 참조).

2010년 1/4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1/4분기보다 0.1%p 증가한 59.8%를 기록했으며, 남성은 2009년 1/4분기와 동일한 수준(72.0%)을 보였으나 여성은 0.2%p 증가한 48.1%로 나타났다. 15~64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1/4분기보다 0.6%p 증가한 65.2%를 기록하였으며, 남성(0.4%p)과 여성(0.6%p)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2010년 1/4분기 고용률은 2009년 1/4분기의 57.4%에서 0.4%p 감소한 57.0%를 기록하였고, 남성은 0.3%p 감소한 68.6%, 여성은 0.5%p 감소한 45.9%에 머물렀다. 그러나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09년 1/4분기보다 0.2%p가 증가한 62.2%를 기록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각각 0.1%p 증가했다.

2010년 1/4분기 실업자는 2009년 1/4분기에 비해 222천 명이 증가해 1,130천 명을 기록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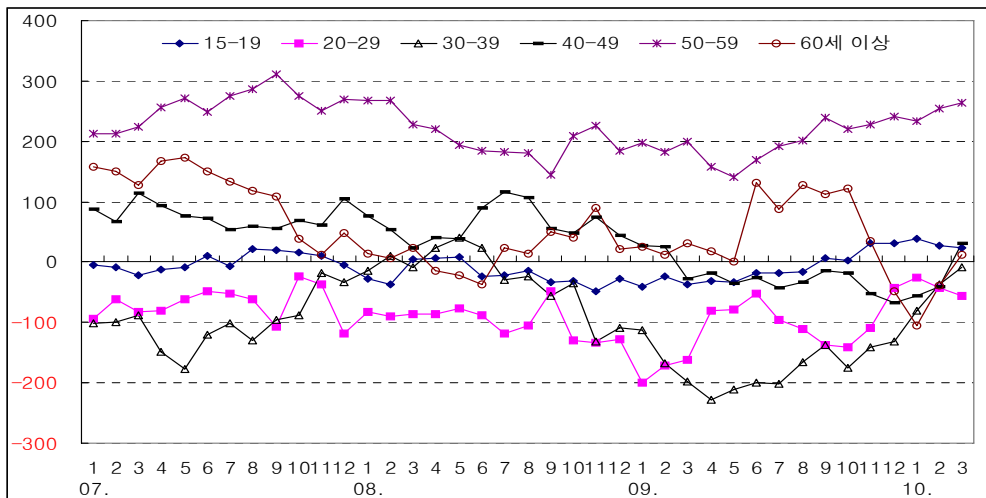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08.	2009.	2010.							
		1/4	1/4	1월	2월	3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39,426 (1.1)	39,900 (1.2)	39,864 (1.2)	39,900 (1.2)	39,937 (1.2)	40,421 (1.3)	40,387 (1.3)	40,420 (1.3)	40,455 (1.3)	
	경제활동인구	23,852 (0.7)	23,812 (0.2)	23,709 (-0.1)	23,667 (-0.2)	24,062 (-0.2)	24,166 (1.5)	24,081 (1.6)	24,035 (1.6)	24,382 (1.3)	
	취업자 (증가율)	23,051 (0.9)	22,904 (-0.6)	22,861 (-0.4)	22,742 (-0.6)	23,110 (-0.8)	23,036 (0.6)	22,865 (0.0)	22,867 (0.5)	23,377 (1.2)	
	(증감수)	(209)	(-146)	(-103)	(-142)	(-195)	(132)	(4)	(125)	(267)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60.5 (72.7)	(59.7) (72.0)	(59.5) (71.7)	(59.3) (71.7)	(60.2) (72.7)	(59.8) (72.0)	(59.6) (71.9)	(59.5) (71.8)	(60.3) (72.4)	
	(여성)	(48.9)	(47.9)	(47.8)	(47.5)	(48.4)	(48.1)	(47.8)	(47.7)	(48.7)	
	고용률 (남성)	(58.5) (70.0)	(57.4) (68.9)	(57.3) (68.8)	(57.0) (68.5)	(57.9) (69.4)	(57.0) (68.6)	(56.6) (68.3)	(56.6) (68.2)	(57.8) (69.2)	
	(여성)	(47.5)	(46.4)	(46.4)	(46.0)	(46.9)	(45.9)	(45.4)	(45.4)	(46.9)	
	실업자 (남성)	801 (3.4)	908 (3.8)	848 (3.6)	924 (3.9)	952 (4.0)	1,130 (4.7)	1,216 (5.0)	1,169 (4.9)	1,005 (4.1)	
	(여성)	(3.7)	(4.3)	(4.1)	(4.4)	(4.5)	(4.8)	(5.1)	(5.0)	(4.4)	
	(여성)	(2.8)	(3.1)	(2.9)	(3.3)	(3.1)	(4.5)	(5.0)	(4.7)	(3.7)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5,575 (1.8)	16,088 (3.3)	16,156 (3.2)	16,233 (3.2)	15,875 (3.4)	16,254 (1.0)	16,305 (0.9)	16,384 (0.9)	16,073 (1.2)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65.3) (76.7)	(64.6) (76.1)	(64.5) (75.9)	(64.3) (75.8)	(64.9) (76.5)	(65.2) (76.5)	(65.1) (76.5)	(64.9) (76.3)	(65.4) (76.6)
		(여성)	(53.9)	(53.1)	(53.1)	(52.8)	(53.4)	(53.7)	(53.7)	(53.5)	(54.1)
고용률 (남성)		(63.0) (73.7)	(62.0) (72.7)	(62.1) (72.7)	(61.7) (72.4)	(62.2) (72.8)	(62.2) (72.8)	(62.1) (72.8)	(61.9) (72.5)	(62.6) (73.2)	
(여성)		(52.3)	(51.4)	(51.5)	(51.0)	(51.6)	(51.5)	(51.2)	(51.1)	(5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1〉 연령별 취업자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했다. 실업자가 1,000천 명이 넘는 것은 2001년 1/4분기 이후 처음이며, 실업률도 2009년 1/4분기 대비 0.9%p 증가해 4.7%를 기록했다. 한편, 2010년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1/4분기보다 1.0% 증가해 가파르던 증가 추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이는 실업자와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II. 부문별 노동시장 동향과 특징

1. 상용직 증가세 유지와 일용직 감소폭 확대

2008년 하반기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일자리는 전년대비 71천 개(상반기 140천 개)가 사라졌다. 이들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임금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 집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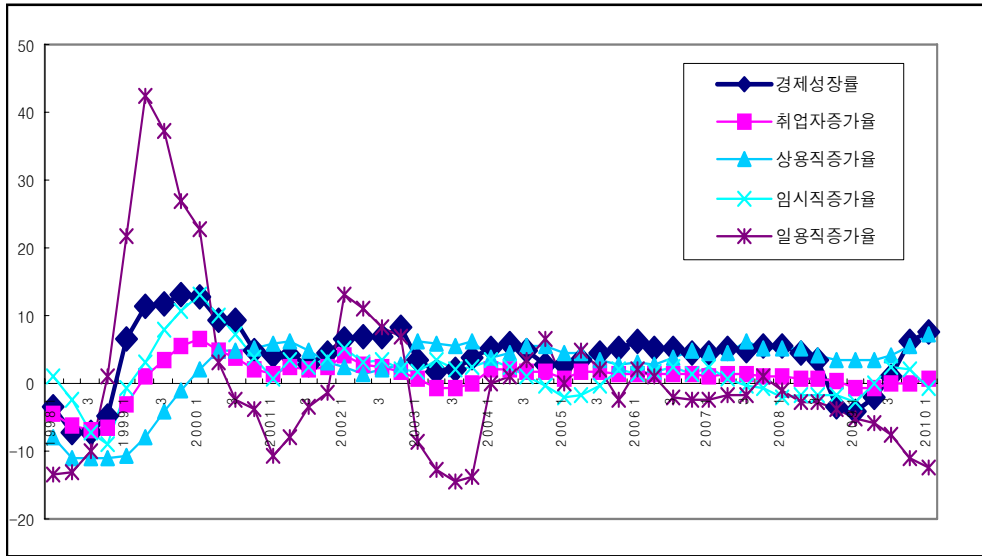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2009년 2/4분기부터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4분기에는 7.8%(속보치)로 한국은행의 예상치 7.5%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 4/4분기 8.1%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1/4분기 일자리수는 전년동기대비 133천 개(1월 4천 개, 2월 125천 개, 3월 267천 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 1/4분기 일자리 감소(147천 개 감소)의 기저효과와 최근의 경기회복에 기인한다.

현재의 경기회복국면의 일자리 구조는 IMF 경제위기 이후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1999년 경기회복국면에서는 일용직 일자리가 경기순응적 패턴을 보인 반면,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국면에서는 오히려 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용직 일자리가 경기에 비탄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자리의 특징은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일용직 일자리는 급감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상용직 일자리는 2010년 3월 전년동월대비 752천 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 일자리는 2010년 3월 전년동월대비 274천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 일자리는 2010년에도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2010년 1/4분기에 134천 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경제성장률과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 201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속도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2010. 4.

<표 2>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변동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								비 중							
	2009.				2010.				2009.				2010.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전 체	-146	-103	-142	-195	132	5	125	2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	73	20	117	82	371	244	329	541	70.0	70.2	70.1	69.6	71.2	71.3	71.2	71.1
상용직	318	287	390	276	651	609	593	752	57.1	56.7	57.6	57.1	59.8	59.6	60.1	59.7
임시직	-136	-134	-192	-83	-37	-121	-24	35	30.7	31.0	30.5	30.7	29.8	29.8	29.7	29.9
일용직	-108	-133	-81	-112	-243	-244	-239	-247	12.1	12.3	11.9	12.2	10.4	10.6	10.2	10.3
비임금	-220	-124	-259	-277	-239	-239	-204	-274	30.0	29.8	29.9	30.4	28.8	28.7	28.8	28.9
고용주	-46	-25	-80	-34	43	62	46	22	21.4	21.6	21.6	21.1	22.8	23.3	22.9	22.3
자영자	-150	-87	-176	-188	-149	-175	-115	-157	60.3	60.5	60.3	60.1	60.2	60.1	60.4	60.2
무급가족종사자	-23	-12	-4	-54	-133	-127	-135	-139	18.3	17.9	18.1	18.8	16.9	16.7	16.7	17.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최근 일자리 증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주도

2010년 1/4분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151천 개 증가하였다. 특히 300인 미만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2010년 1/4분기 391천 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용직 일자리가 646천 개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임금근로자의 규모별 일자리 변동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								비 중							
	2009.				2010.				2009.				2010.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전 체	73	21	117	82	371	244	329	5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0인 미만	15	-	42	5	391	245	379	548	88.0	88.2	87.8	88.0	88.4	88.4	88.4	88.4
1~5인	-85	-60	-94	-100	82	-7	124	129	19.2	19.5	19.1	19.0	19.3	19.2	19.5	19.1
5~9인	-10	-14	37	-51	7	-42	-26	89	17.0	17.1	17.0	16.7	16.6	16.6	16.5	16.7
10~29인	93	44	92	144	73	81	47	90	22.3	22.1	22.3	22.6	22.3	22.3	22.1	22.4
30~99인	-6	-26	1	6	187	176	202	183	19.7	19.5	19.6	19.9	20.4	20.3	20.4	20.3
100~299인	23	55	6	6	42	38	31	57	9.8	9.9	9.9	9.7	9.9	10.0	9.9	9.7
300인 이상	58	21	76	78	-19	-1	-49	-7	12.0	11.8	12.2	12.0	11.6	11.6	11.6	1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4〉 임금근로자의 규모별·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변동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								비 중							
	2009.				2010.				2009.				2010.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전 체	73	20	117	82	371	244	329	541	(70.0)	(70.2)	(70.1)	(69.6)	(71.2)	(71.3)	(71.2)	(71.1)
300인 미만	15	-0	42	4	391	245	379	54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268	269	323	212	646	585	613	742	52.5	52.1	53.0	52.3	55.5	55.2	55.8	55.4
임시직	-146	-132	-207	-99	-16	-106	5	52	33.9	34.2	33.6	33.9	32.9	32.9	32.8	33.0
일용직	-107	-137	-75	-109	-239	-234	-239	-245	13.6	13.7	13.4	13.8	11.6	11.9	11.4	11.6
300인 이상	58	21	76	78	-19	-1	-49	-7	100.0	100.0	100.0	100.0	100.0	13.2	13.1	13.1
상용직	50	19	67	64	5	24	-20	10	91.5	91.4	91.4	91.5	92.6	12.2	12.2	12.1
임시직	9	-2	14	16	-20	-15	-29	-16	7.6	7.2	7.7	7.8	6.6	0.8	0.8	0.9
일용직	-2	4	-6	-3	-4	-10	-0	-1	0.9	1.3	0.9	0.6	0.7	0.1	0.1	0.1

주:()안은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러나 동기간 동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일자리는 오히려 19천 개 감소하였으며,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로 나타났다. 대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고용한파가 몰아쳤던 2009년 1/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57천 개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3. 제조업 일자리 증가세로 전환

2010년 1/4분기 국내총생산(속보치)을 보면,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20.0%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2010년 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3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110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2010년 1/4분기 61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의 조짐이 고용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표 5〉 산업별 일자리 변동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								비 중							
	2009.				2010.				2009.				2010.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전 체	-146	-103	-142	-195	132	5	125	2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4	15	6	22	-164	-160	-143	-188	6.1	5.6	5.9	6.8	5.4	4.9	5.2	5.9
광업	-2	-3	-2	0	1	2	0	-1	0.1	0.1	0.1	0.1	0.1	0.1	0.1	0.1
제조업	-163	-127	-176	-186	61	29	45	110	16.8	17.0	16.9	16.5	17.0	17.2	17.0	16.8
전기·가스 등	9	4	9	13	-17	-11	-17	-25	0.4	0.4	0.4	0.4	0.3	0.4	0.3	0.3
하수·폐기물 등	7	-0	7	14	-10	-7	-11	-10	0.3	0.3	0.3	0.3	0.3	0.3	0.3	0.3
건설업	-43	-41	-17	-71	-61	-81	-87	-16	7.4	7.4	7.4	7.5	7.1	7.1	7.0	7.4
도매 및 소매업	-65	-66	-51	-79	10	26	36	-33	15.8	15.9	15.8	15.6	15.7	16.0	15.9	15.3
운수업	-23	-14	-42	-13	63	48	77	66	5.3	5.4	5.3	5.3	5.6	5.6	5.6	5.5
숙박 및 음식점업	-50	-28	-66	-57	-67	-79	-66	-56	8.6	8.9	8.7	8.4	8.3	8.5	8.3	8.0
출판·영상 등	-23	-37	-10	-21	46	59	39	39	2.7	2.7	2.7	2.7	2.9	3.0	2.9	2.8
금융 및 보험업	-37	-17	-34	-61	19	-5	30	33	3.4	3.5	3.4	3.3	3.5	3.5	3.5	3.4
부동산업 등	10	-5	13	20	18	20	19	15	2.2	2.2	2.2	2.2	2.2	2.2	2.3	2.2
전문·과학 등	100	92	111	98	39	52	44	23	3.5	3.5	3.6	3.5	3.7	3.7	3.8	3.6
사업시설관리 등	-14	5	-23	-24	31	-2	48	47	4.0	4.0	3.9	4.1	4.1	4.0	4.1	4.2
공공행정 등	34	2	29	70	24	15	-17	75	3.7	3.5	3.7	3.9	3.8	3.5	3.6	4.2
교육서비스업	27	25	24	33	53	48	38	73	7.7	7.7	7.8	7.7	7.9	7.9	7.9	7.9
보건업 등	134	130	139	134	114	123	100	120	4.0	3.9	4.1	4.1	4.5	4.5	4.5	4.6
예술·스포츠 등	30	40	27	24	-54	-64	-46	-51	1.8	1.9	1.8	1.8	1.6	1.6	1.6	1.5
협회 및 단체 등	-77	-54	-74	-104	23	-13	38	44	5.3	5.4	5.3	5.2	5.4	5.4	5.5	5.3
가구내 고용 등	-12	-21	-10	-4	3	4	-1	6	0.6	0.6	0.6	0.6	0.6	0.6	0.6	0.6
국제 및 외국기관	-3	-3	-4	-3	-2	-3	0	-3	0.1	0.1	0.1	0.1	0.0	0.0	0.1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스업(114천 개), 운수업(63천 개), 교육서비스업(53천 개) 등에서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 내수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67천 개), 건설업(-61천 개)에서는 고용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4. 상용직 일자리는 제조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주도

2010년 1/4분기 상용직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651천 개 증가함으로써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105천 개)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04천 개), 제조업(77천 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5. 일용직 일자리 부진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탄력적인 일용직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일자리 부진은 건설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4분기 일용직 일자리는 제조업(44천 개)에서도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업(98천 개), 숙박·음식점업(45천 개)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자영자의 일자리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20~30대 연령층 일자리 감소와 50대 연령층 일자리 급증

최근의 일자리 증가는 50대 연령층에서 주도하고 있다. 50대 연령층의 일자리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251천 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30대 연령층의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데 2010년 1/4분기에 8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7.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 동향

2009년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자는 소폭 증가한 반면, 취업자는 감소 추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2010년 들어 크게 변화했다(그림 3 참

조).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종료와 함께 2010년 1월 실업자가 큰 폭으로 치솟아 2009년 1월 대비 368천 명이나 증가하였지만,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어 2010년 3월에는 예년 수준의 증가로 돌아섰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2010년 1월 크게 하락한 이후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동태적인 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 유입·유출 분석을 시도하였다.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실업+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한 유출규모는 2009년 1/4분기 대비 138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4분기는 실업으로의 유출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10년 1/4분기 취업으로의 유

〈표 6〉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변동

(단위: %, 전년동기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08.1	2009.1	2010.1	2008.1	2009.1	2010.1	2008.1	2009.1	2010.1
전 체	435	318	651	-98	-136	-37	-25	-108	-243
농림어업	4	-0	1	3	7	3	-7	-6	-7
광업	6	-3	1	1	0	-1	0	-0	-1
제조업	9	19	77	-32	-115	-9	3	-32	-4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	13	-18	-3	-4	-1	1	-1	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3	6	0	6	-2	-8	-0	0	-1
건설업	68	36	11	5	-29	1	-48	-10	-98
도매 및 소매업	81	8	59	-76	-33	9	10	-5	-13
운수업	-10	14	67	7	-28	-0	2	-6	-15
숙박 및 음식점업	14	-8	46	-48	27	-0	32	-6	-4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	-8	50	-8	4	-15	4	-10	5
금융 및 보험업	25	23	1	19	-47	19	-1	-1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	19	38	13	-12	10	-8	4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2	93	39	-16	-2	-6	-7	-2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2	23	104	10	10	-84	6	-38	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4	-2	10	2	34	37	-11	2	-23
교육서비스업	47	26	51	-21	8	-17	2	1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7	55	87	20	61	27	-3	8	-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8	-9	1	19	-21	2	-7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7	1	36	6	-34	17	2	6	-0
가구내 고용활동 등	-	-	1	12	-1	2	-3	-7	1
국제 및 외국기관	2	-4	-2	-0	0	-0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7〉 산업별·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변동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08.				2009.				2010.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제조업	전 체	-18	-25	-12	-16	-163	-127	-176	-186	61	29	45	110
	상용직	9	19	-12	20	19	22	66	-30	77	54	34	145
	임시직	-32	-40	-11	-44	-115	-100	-153	-91	-9	-10	19	-36
	일용직	3	10	-12	11	-32	-35	-20	-40	-44	-45	-46	-40
	고용주	-6	-13	4	-9	-31	-34	-47	-12	23	32	24	13
	자영자	15	-4	31	17	-1	22	-18	-8	-6	-18	-0	-1
	무급가족종사자	-7	3	-12	-11	-4	-2	-3	-5	20	17	14	29
건설업	전 체	-22	-8	-18	-41	-43	-41	-17	-71	-61	-81	-87	-16
	상용직	68	73	64	67	36	37	40	30	11	6	5	22
	임시직	5	12	13	-10	-29	-30	-47	-12	1	-4	14	-6
	일용직	-48	-39	-44	-62	-10	-25	31	-36	-98	-101	-126	-67
	고용주	-27	-36	-26	-19	-15	-0	-15	-30	-5	-11	-10	4
	자영자	-19	-18	-22	-15	-20	-17	-21	-21	26	26	24	27
	무급가족종사자	-1	0	-3	-1	-5	-6	-6	-3	4	3	6	4
도매 및 소매업	전 체	-23	-35	-26	-9	-65	-66	-50	-79	10	26	36	-33
	상용직	81	78	99	66	8	-2	26	-0	59	45	45	87
	임시직	-76	-72	-75	-81	-33	-52	-33	-13	9	29	36	-37
	일용직	10	7	-6	28	-5	16	-18	-12	-13	-18	3	-24
	고용주	-1	5	-10	1	3	6	10	-7	9	12	3	11
	자영자	-27	-42	-23	-15	-34	-39	-29	-35	-21	-10	-15	-38
	무급가족종사자	-10	-12	-11	-7	-4	6	-6	-12	-34	-32	-36	-33
운수업	전 체	18	26	21	8	-23	-14	-41	-13	63	48	77	66
	상용직	-10	-13	-18	1	14	10	4	27	67	74	74	53
	임시직	7	6	18	-4	-28	-30	-32	-22	-0	-1	-1	1
	일용직	2	0	8	-1	-6	6	-13	-9	-15	-19	-12	-14
	고용주	-6	-3	-5	-10	-1	-2	-2	1	-2	-3	1	-4
	자영자	30	41	24	25	-1	1	3	-8	15	-3	15	32
	무급가족종사자	-4	-6	-5	-3	-0	1	-0	-2	-1	-1	-1	-2
숙박 및 음식점업	전 체	-13	-1	-3	-34	-50	-28	-66	-57	-67	-79	-66	-56
	상용직	14	16	7	18	-8	-10	-8	-5	46	41	50	47
	임시직	-48	-42	-57	-44	27	43	37	1	-0	-3	-22	24
	일용직	32	38	39	19	-6	-22	-7	11	-45	-48	-35	-51
	고용주	-2	-5	4	-4	-19	-12	-33	-10	-5	0	-1	-14
	자영자	-18	-20	-6	-27	-37	-21	-54	-36	-18	-28	-7	-19
	무급가족종사자	9	12	10	4	-8	-5	-1	-17	-44	-40	-51	-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8〉 20~30대/50대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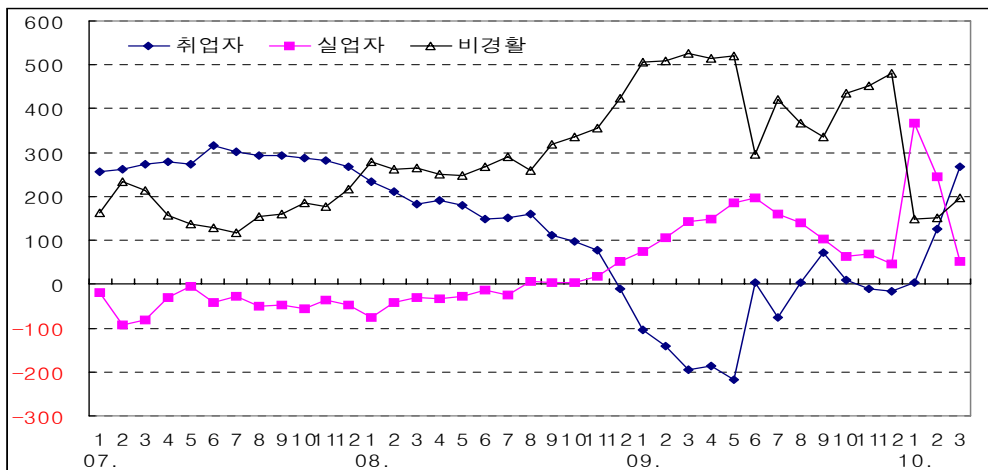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일자리수			고용증감		
	2008. 1/4	2009. 1/4	2010. 1/4	2008.1/4	2009. 1/4	2010. 1/4
<20~30대>						
전 체	9,911	9,575	9,492	-91	-336	-83
상용직	5,221	5,238	5,378	205	17	140
임시직	2,480	2,383	2,289	-214	-97	-94
일용직	647	551	481	-8	-96	-69
고용주	395	353	362	-27	-42	8
자영자	869	780	745	-31	-88	-35
무급가족종사자	301	270	237	-17	-31	-33
<50대>						
전 체	4,110	4,303	4,554	254	193	251
상용직	1,126	1,231	1,433	129	104	203
임시직	734	752	798	62	19	46
일용직	442	456	412	26	14	-44
고용주	371	381	411	23	10	30
자영자	1,105	1,138	1,175	-8	33	36
무급가족종사자	333	345	326	21	13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3〉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입이 크게 증가해 2007년 1/4분기 수준으로 회복했음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월 급증했던 실업자는 3월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50세 이상(특히 60세 이상) 연령대의 실업자 증가규모가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년 이내 직장경험이 있는 실업자의 규모도 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해 2010년 3월에는 14천 명 증가에 그쳤다. 1년 이내에 직장경험이 있던 실업자의 대부분이 50세 이상이며, 이들 중 상당부분은 예년 추세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업자의 전직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 임시직이며 산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고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9〉 취업 유입·유출 변화

(단위:천 명)

	2006. 1/4	2007. 1/4	2008. 1/4	2009				2010. 1/4
				1/4	2/4	3/4	4/4	
취업자 순변화(B-A)	331	264	209	-146	-134	0	-6	132
취업유출(취업→실업·비경활, A)	813 (-15)	743 (-70)	759 (16)	795 (36)	563 (19)	790 (152)	788 (124)	933 (138)
취업유출(취업→실업)	184 (-1)	177 (-8)	167 (-10)	177 (10)	164 (16)	178 (26)	146 (-3)	227 (50)
취업유출(취업→비경활)	629 (-14)	566 (-62)	592 (25)	618 (26)	399 (3)	613 (127)	642 (127)	707 (88)
취업유입(실업·비경활→취업, B)	1,144	1,008	968	648	429	790	782	1,065

주:()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규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Ⅲ. 향후 고용전망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경기회복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하여 제조업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간의 취업자의 대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2010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전년인 2009년 하반기부터 희망근로 등이 시작되어 취업자 감소폭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2010년 상반기와 같은 통계적 반등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희망근로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이 상반기에 비해 줄어들

〈표 10〉 실업자 특징

(단위: 천 명)

		(연도별 추이)							(증가)					
		2007.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4	1/4	1/4	1/4	1월	2월	3월	1/4	1/4	1/4	1월	2월	3월
연령	계	851	801	908	1,130	1,216	1,169	1,005	-50	107	222	368	244	53
	15~19세	25	20	28	37	57	30	23	-5	9	8	15	6	3
	20~29세	322	308	339	371	355	403	357	-14	31	32	40	54	1
	30~39세	216	192	227	234	232	242	229	-23	35	7	18	13	-10
	40~49세	151	160	166	192	188	198	191	9	7	26	44	35	-1
	50~59세	96	83	108	149	172	151	126	-13	25	42	71	38	16
	60세 이상	42	38	39	146	213	145	80	-4	1	107	179	98	43
전직여부	1년 이내	646	598	691	826	916	831	730	-48	92	135	254	138	14
	1년 이전	164	158	171	247	230	278	232	-6	13	76	88	97	42
	경험없음	40	44	47	57	70	60	43	4	2	11	26	9	-3
<1년 이내 전직자 중>														
연령	15~19세	13	10	15	18	27	14	12	-4	6	2	5	2	1
	20~29세	220	195	222	237	237	242	231	-25	28	14	15	17	10
	30~39세	170	152	181	178	179	180	177	-18	29	-3	5	3	-17
	40~49세	128	139	148	153	156	159	144	11	8	5	25	13	-23
	50~59세	82	71	95	124	145	127	100	-10	24	29	56	28	4
	60세 이상	34	31	29	116	173	110	66	-3	-2	87	148	75	39
전직시점	조사월	33	38	46	47	35	60	46	5	8	1	-4	13	-5
	조사전월	177	167	177	227	315	166	200	-10	10	50	129	4	16
	조사2개월 전	125	104	134	170	188	224	98	-21	30	36	67	74	-34
	조사3개월 전	85	81	91	110	95	102	131	-4	10	18	16	5	34
	4개월 이상	227	208	243	273	284	279	256	-19	35	30	47	41	2
종사상지위	상용	140	138	183	197	203	194	194	-2	45	14	31	19	-9
	임시	251	240	235	375	452	358	314	-11	-5	140	235	114	71
	일용	192	163	221	193	198	211	169	-29	58	-28	-18	-13	-53
	고용주	14	15	13	13	8	14	16	0	-2	-0	-6	1	4
	자영자	42	37	34	40	45	44	30	-5	-4	6	8	12	-2
	무급	7	5	5	9	11	10	6	-2	0	4	4	5	2
산업	제조업(C)	27	9	127	114	119	118	106	-18	118	-13	-3	-7	-29
	건설업(F)	28	9	144	110	110	123	98	-19	135	-33	-18	-24	-58
	도소매업(G)	26	7	110	95	106	93	88	-18	102	-14	-3	-17	-24
	사업시설·지원(N)	9	3	36	55	59	55	51	-6	33	19	19	21	16
	공공행정(O)	3	1	12	108	177	95	52	-3	12	96	164	80	43
	교육서비스(P)	8	2	30	53	48	55	56	-6	28	23	17	23	27
	사회복지(Q)	3	1	21	41	42	47	33	-2	20	20	20	23	16
	전문가	19	7	80	109	100	114	112	-12	73	28	30	32	24
직업	사무종사	24	6	105	133	138	136	123	-18	99	27	40	28	14
	장치·기계·조립	21	5	79	64	73	64	57	-16	74	-15	-1	-10	-32
	단순노무직	34	11	169	267	353	257	192	-22	157	99	193	82	21

주: 전직 산업과 전직 직종은 중요한 것만 제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규모는 상반기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고용시장은 경제성장률이 5.9%로 가정하면 취업자수는 25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밖에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실업률은 3.9%, 고용률은 58.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자수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유입규모 또한 늘어날 것이므로 2009년(889천 명)보다 많은 963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2010년 고용시장은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 2009년의 고용감소에 대한 통계적 반등효과, 2010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 비해 회복세가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취업자 규모면에서는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들에 대한 고용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KLI**

〈표 11〉 2010년 고용전망

(단위: 천 명, %)

	2009	2010p(경제성장률 5.9% 가정)		
		연간	상반기	하반기
경제성장률	0.2	5.9	7.2	4.0
생산가능인구	40,092	40,614	40,485	40,744
경제활동인구	24,394	24,720	24,550	24,890
경제활동참가율	60.8	60.9	60.6	61.1
취업자	23,506	23,757	23,575	23,939
(증가율)	-0.3	1.1	1.1	1.0
(증감수)	-72	251	254	248
실업자수	889	963	976	950
실업률	3.6	3.9	4.0	3.8
고용률	58.6	58.5	58.2	58.8

주: p는 전망치이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KDI 자료임.

〈부표 1〉 상용직 일자리 변동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								비 중							
		2009.				2010.				2009.				2010.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전 체		318	287	390	276	651	609	592	7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규모	300인 미만	268	269	323	212	646	585	613	742	80.8	81.0	80.7	80.7	82.0	81.9	82.1	82.0
	1~5인	23	22	24	22	108	94	116	115	6.0	6.1	6.1	5.9	6.7	6.6	6.9	6.6
	5~9인	51	66	64	25	99	86	84	126	11.5	11.6	11.6	11.3	11.8	11.8	11.8	11.7
	10~29인	118	102	141	111	178	171	168	195	23.0	23.0	22.9	23.1	23.3	23.3	23.3	23.3
	30~99인	36	16	57	37	196	175	205	208	25.7	25.6	25.5	25.9	26.0	25.8	26.0	26.1
	100~299인	39	63	37	18	65	59	39	98	14.6	14.7	14.6	14.4	14.3	14.4	14.1	14.3
	300인 이상	50	19	67	64	5	24	-20	10	19.2	19.0	19.3	19.3	18.0	18.1	17.9	18.0
산업	농림어업	-0	-0	-2	2	1	0	0	1	0.2	0.2	0.2	0.2	0.2	0.2	0.2	0.2
	광업	-3	-4	-2	-2	1	1	1	2	0.2	0.2	0.2	0.2	0.2	0.2	0.2	0.2
	제조업	19	22	66	-30	77	54	34	145	26.0	26.1	26.1	25.9	25.1	25.0	24.9	25.3
	전기·가스 등	13	6	13	19	-18	-9	-18	-26	1.0	1.0	1.0	1.1	0.8	0.8	0.8	0.7
	하수·폐기물 등	6	-1	8	12	0	3	-3	1	0.5	0.4	0.5	0.5	0.5	0.4	0.4	0.5
	건설업	36	37	40	30	11	6	5	22	5.8	5.9	5.8	5.6	5.5	5.6	5.5	5.4
	도매 및 소매업	8	-2	26	-0	59	45	45	87	8.7	8.7	8.9	8.5	8.7	8.6	8.8	8.7
	운수업	14	10	4	27	67	74	74	53	5.0	5.0	4.9	5.2	5.4	5.4	5.4	5.3
	숙박 및 음식점업	-8	-10	-8	-5	46	41	50	47	1.3	1.3	1.3	1.3	1.7	1.6	1.7	1.7
	출판·영상 등	-8	-20	2	-7	50	66	41	42	5.2	5.1	5.2	5.2	5.3	5.5	5.3	5.2
	금융 및 보험업	23	29	31	9	1	-2	-5	10	5.3	5.4	5.4	5.2	5.0	5.0	5.0	4.9
	부동산업 등	19	15	21	22	38	32	39	44	1.5	1.5	1.5	1.5	1.8	1.7	1.8	1.8
	전문·과학 등	93	86	103	90	39	48	38	31	6.5	6.4	6.5	6.5	6.4	6.5	6.5	6.3
	사업시설관리 등	23	34	13	22	104	80	115	116	5.0	5.0	4.8	5.1	5.7	5.5	5.7	5.9
	공공행정 등	-2	-2	-6	1	10	34	1	-4	7.3	7.2	7.3	7.5	7.0	7.1	6.9	6.8
	교육서비스업	26	25	30	24	51	34	47	71	9.8	9.8	9.8	9.7	9.7	9.6	9.7	9.7
	보건업 등	55	61	51	53	87	91	94	75	6.6	6.6	6.5	6.8	7.1	7.1	7.1	7.0
	예술·스포츠 등	8	8	4	10	-9	-15	-4	-8	1.1	1.1	1.1	1.1	0.9	0.9	1.0	0.9
	협회 및 단체 등	1	-2	0	6	36	26	36	46	2.9	2.9	2.9	2.9	3.1	3.0	3.1	3.1
	가구내 고용 등	-	-	-	-	1	2	2	-	0.0	0.0	0.0	0.0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4	-4	-4	-4	-2	-3	-0	-2	0.1	0.1	0.1	0.1	0.1	0.1	0.1	0.1	
직종	관리자	2	3	0	3	37	37	36	38	3.6	3.7	3.6	3.5	3.7	3.8	3.7	3.6
	전문가 및 관련 등	70	59	99	51	111	74	108	150	30.0	30.2	29.9	29.7	29.1	29.1	29.2	29.0
	사무종사자	122	107	170	91	109	134	70	123	29.9	29.7	30.0	30.1	29.1	29.2	28.9	29.0
	서비스종사자	29	22	12	53	103	113	109	85	4.5	4.3	4.3	4.8	5.2	5.2	5.2	5.3
	판매종사자	9	12	17	-4	60	60	51	70	4.3	4.3	4.4	4.2	4.6	4.6	4.7	4.5
	농림어업숙련	-0	-3	-2	5	2	3	3	-1	0.1	0.1	0.1	0.2	0.2	0.2	0.2	0.2
	기능원 및 관련 등	45	46	37	52	-17	-25	-13	-14	8.0	8.0	8.0	8.1	7.3	7.2	7.3	7.4
	장치·기계 등	44	48	50	34	101	95	76	133	13.3	13.4	13.4	13.2	13.5	13.6	13.4	13.5
단순노무종사자	-3	-5	6	-10	146	118	152	169	6.3	6.2	6.2	6.3	7.3	7.1	7.4	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2〉 일용직 일자리 변동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								비 중								
	2009.				2010.				2009.				2010.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1/4	1월	2월	3월	
전 체	-108	-133	-80	-112	-243	-244	-239	-2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규 모	300인 미만	-107	-137	-75	-109	-239	-234	-239	-245	99.1	98.7	99.1	99.4	99.2	99.1	99.0	99.4
	1~5인	-65	-81	-63	-50	-39	-37	-11	-69	44.8	44.3	44.7	45.3	48.9	48.5	50.4	47.8
	5~9인	-4	-22	30	-19	-110	-121	-127	-83	28.6	28.4	29.0	28.3	26.2	25.4	25.5	27.5
	10~29인	-22	-28	-29	-8	-65	-48	-76	-71	17.8	17.4	17.4	18.5	16.5	17.0	15.4	17.0
	30~99인	-17	-12	-10	-28	-15	-16	-16	-13	5.8	6.2	5.9	5.5	5.8	6.1	5.8	5.5
	100~299인	0	6	-2	-3	-10	-12	-8	-8	2.1	2.5	2.1	1.8	1.9	2.1	1.9	1.6
	300인 이상	-2	4	-6	-3	-4	-10	-0	-1	0.9	1.3	0.9	0.6	0.8	0.9	1.0	0.6
산 업	농림어업	-6	-12	-10	4	-7	-6	-16	1	4.3	3.7	4.1	5.2	4.6	3.8	3.7	6.1
	광업	-0	-1	1	0	-1	0	-1	-1	0.0	0.0	0.1	0.1	0.0	0.0	0.0	0.0
	제조업	-32	-35	-20	-40	-44	-45	-46	-40	12.2	13.1	12.3	11.2	11.4	12.4	11.3	10.5
	전기·가스 등	-1	-0	-1	-1	1	0	2	1	0.0	0.0	0.0	0.0	0.1	0.0	0.1	0.1
	하수·폐기물 등	0	1	1	-1	-1	-2	-1	-1	0.1	0.1	0.1	0.1	0.0	0.0	0.0	0.0
	건설업	-10	-25	31	-36	-98	-101	-126	-67	31.9	30.3	32.0	33.3	30.6	28.7	29.0	34.2
	도매 및 소매업	-5	16	-18	-12	-13	-18	3	-24	13.1	14.0	12.9	12.4	14.2	15.0	14.9	12.8
	운수업	-6	6	-13	-9	-15	-19	-12	-14	2.7	2.9	2.6	2.4	2.2	2.3	2.3	2.0
	숙박 및 음식점업	-6	-22	-7	11	-45	-48	-35	-51	17.4	18.2	17.7	16.5	17.3	18.0	18.1	15.9
	출판·영상 등	-10	-9	-13	-8	5	3	5	6	0.6	0.7	0.6	0.5	1.0	0.9	1.0	0.9
	금융 및 보험업	-1	-1	-2	-2	2	-1	6	1	0.2	0.2	0.2	0.2	0.4	0.3	0.6	0.3
	부동산업 등	4	4	0	6	-1	-1	0	-3	0.5	0.6	0.4	0.6	0.5	0.6	0.4	0.5
	전문·과학 등	-2	-3	-4	-0	-2	-2	0	-6	0.6	0.5	0.5	0.8	0.5	0.5	0.5	0.6
	사업시설관리 등	-38	-40	-43	-31	2	3	10	-7	3.7	3.5	3.4	4.1	4.3	4.2	4.5	4.4
	공공행정 등	2	-0	3	4	-23	-14	-23	-31	1.6	1.5	1.7	1.8	0.5	0.9	0.5	0.2
	교육서비스업	1	3	1	-3	-3	-6	-3	-0	1.0	1.0	1.1	0.9	0.9	0.8	1.0	1.0
	보건업 등	8	5	10	10	-0	3	-2	-1	1.1	0.9	1.1	1.2	1.2	1.2	1.2	1.3
	예술·스포츠 등	-7	-7	-3	-11	-0	3	-1	-3	2.1	2.0	2.2	1.9	2.3	2.5	2.4	2.1
	협회 및 단체 등	6	0	11	6	-0	7	1	-8	3.9	3.8	4.1	3.8	4.5	4.7	4.8	3.9
	가구내 고용 등	-7	-14	-5	-1	1	1	-0	1	2.9	2.8	3.0	2.9	3.4	3.3	3.4	3.4
국제 및 외국기관																	
직 종	관리자	-	-	-	-	0	-	-	1	0.0	0.0	0.0	0.0	0.0	0.0	0.0	0.0
	전문가 및 관련 등	-5	-3	-5	-6	-9	-10	-5	-11	1.2	1.2	1.1	1.3	0.8	0.8	0.9	0.8
	사무종사자	-15	-7	-24	-14	6	0	18	-1	1.7	2.3	1.5	1.5	2.3	2.6	2.8	1.6
	서비스종사자	9	-1	16	13	-74	-74	-67	-82	17.3	17.9	17.7	16.2	15.4	16.1	16.2	13.8
	판매종사자	-19	-13	-24	-21	15	22	20	2	6.9	7.0	7.1	6.5	8.7	9.3	9.3	7.6
	농림어업숙련	-7	-11	-9	-2	-4	-4	-2	-6	1.0	0.8	0.8	1.3	0.9	0.7	0.8	1.2
	기능원 및 관련 등	-11	-40	5	2	-62	-45	-60	-80	23.7	22.2	23.3	25.6	23.5	22.7	23.0	24.7
	장치·기계 등	-21	-26	-15	-22	-15	-7	-16	-22	4.3	4.3	4.5	4.2	4.1	4.6	4.2	3.5
단순노무종사자	-40	-33	-25	-61	-100	-128	-127	-47	43.9	44.4	44.0	43.3	44.3	43.3	42.8	4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